

유·무선 골고루 성장... 8000억 영업이익 “실적 편식 없다”



영업이익이 826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총 매출은 12조2794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고, 단말 판매를 제외한 실질적 매출인 영업 매출은 9조462억원으로 4.2%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1.0% 늘어난 5471억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주당 배당금도 배당 성향(당기순이익의 30% 수준)에 맞춰 작년 350원에서 올해 4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사업별로 보면 무선 매출은 LTE 가입자의 증가로 전년 대비 2.5% 성장한 5조570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LTE 가입자는 1214만명으로 전년보다 117만명 늘며 전체 가입자의 92%에 달했다.

유선 매출도 IPTV·인터넷전화·초고속 인터넷의 호조와 데이터 사업의 수익 증가로 전년 대비 6.6% 성장한 3조813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IPTV 매출은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1.8% 급증한 7456억원을 기록했다. IPTV 가입자는 전년 대비 15.6% 증가한 354만명이었다. 'U+tv 아이들나라' 출시와 콘텐츠 강화가 가입자 증가의 원동력으로 꼽혔다.

IPTV·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을 합한 TPS 매출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1조7695억원에 달했다.

데이터 매출은 1조67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성장했다.

이익 증가와 함께 차입금 감소 영향 등

으로 재무구조도 개선됐다. 순차입금 비율은 전년 대비 20.8%포인트 감소한 54.7%였고, 부채비율은 128.1%로 전년 대비 20.3%포인트 낮아졌다.

마케팅 비용은 프리미엄폰 판매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한 2조1710억원이 집행됐다. 무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3만5268원으로 2016년보다 593원 줄었다.

지난해 연간 투자지출(CAPEX) 규모는 1조1378억원으로 전년보다 9.4% 줄었다.

4분기 실적만 보면 매출은 3조32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3억원으로 9.2%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한

1356억원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IPTV,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 홈미디어사업과 5G 등 신사업에 집중해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누적 가입자 100만 가구를 달성한 홈IoT는 올해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기업용(B2B) 시장에서는 NB-IoT(협대역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 CFO(최고재무책임자) 이혁주 부사장은 “AI, 5G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가며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당기순이익 11.0% 늘어 5471억

IPTV 매출은 7456억 원 기록

“AI·5G 활용 상승세 이어갈 것”

LG유플러스가 지난해 8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 LG유플러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8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2010년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1일 지난해 연결 기준

SK이노베이션 패럴림픽 참여선수들에 기부

SK이노베이션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 캠페인 열기를 모아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대회' 참여선수들에게 성금을 기부한다.

1일 SK이노베이션은 “이 광고가 한 달여 만에 누적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다”며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전환시키기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SK이노베이션은 공식 정유 부문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광고를 포함한 SK이노베이션의 응원 캠페인은 동계 올림픽 주요 종목인 스케이트, 봅슬레이, 스키, 아이스하키 등 여러 종목을 ‘빠르기’ 관점의 정보전달 개념으로 묶어 관심도를 높이는 동시에 동계올림픽을 응원하는 공공성에 주안점을 뒀다.

기업 광고 캠페인을 통해 기부를 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SK이노베이션의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이매틱스 아트’ 방식의 캠페인 누적 조회수와 연계해 발달장애아동의 음악활동 지원에 4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캠페인을 평창



동계올림픽 종료 시점까지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이다. 동계올림픽 종료 시점의 누적조회수를 연계해 기부금액을 결정하고 유관단체를 통해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선수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SK이노베이션의 캠페인 영상은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오세성 기자 sesung@

아프리카서 ‘LG 이노페스트’ 2018 첫 개최

중동아프리카 프리미엄시장 공략
LG 시그니처 등 전략제품 소개

LG전자가 올해 첫 ‘LG 이노페스트’ 개최지로 중동아프리카를 찾았다. 초(超)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 등을 앞세워 신형시장인 중동아프리카의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케이프타운국제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LG 이노페스트’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LG 이노페스트는 LG전자 고유의 지역 밀착형 신제품 발표회로, 주요 거래선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LG전자 중동아프리카 지역대표 차국환 부사장을 비롯해 64개국에서 온 주요 거래선 및 외신기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사측은 “올해 첫 ‘LG 이노페스트’ 개최지로 아프리카를 선택한 것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이 발표한 ‘아프리카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지난해



LG전자 중동아프리카지역대표 차국환 부사장(앞줄 가운데)이 현지 거래선 관계자들에게 제품 설명하고 있다. /LG전자

3.4%에서 올해는 4.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LG 시그니처를 비롯해 프리미엄 중심의 올해 전략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LG 시그니처는 ▲기술 혁신으로 이룬 압도적인 성능 ▲본질에 충실한 정제된 디자인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직관적인 사용성을 갖춘 LG전자의 초프리미엄 가전으로 올레드 TV, 세탁기, 냉장고, 가습공기청정기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모두 높인 트루프 건조기 ▲두 번 노크하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 ▲독자 개발한 화질집 ‘알파9’을 장착해 보다 완벽한 올레드 화질을 구현하는 올레드 TV 등 올해 판매할 프리미엄 제품들을 전시했다.

이외에도 LG전자는 고효율, 고성능, 저소음 등에 탁월한 인버터 기술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인버터 기술은 올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는 가전제품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LG전자는 중동아프리카에 이어 유럽, 아시아, 중남미에서 연내에 순차적으로 ‘LG 이노페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

대우위니아 IoT 에어컨 ‘둘레바람’ 예약 시작

대우위니아는 오는 4월 9일까지 사물인터넷(IoT) 기능과 ‘둘레바람’으로 냉방 만족도를 높인 ‘2018년형 위니아 에어컨’의 예약판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약판매는 2018년형 위니아 에어컨의 ‘둘레바람’ 라인과 ‘웨이브(WAVE)’ 라인, 벽걸이형 에어컨 등이다.

행사 대상은 전국 대우위니아 전문점 ‘위니아 답채 스테이’와 하이마트·전자랜드 등 양판점, 각종 할인점 및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 구매고객이다.

대우위니아는 예약자에게 구매 모델별로 신제품 가습공기청정기와 드림세탁기(12kg) 등의 사은품과 모바일 상품권 등을 포함 최대 6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둘레바람 스탠드형 에어컨 프리미엄 모델 구입시에는 모바일 상품권 최대 35만원 또는 가습공기청정기를 증정한다. 벽걸이에어컨이 추가된 19평 스탠드형 에어컨 프리미엄 모델 구입시에는 모바일 상품권 50만원과 드림 세탁기 중 선택하면 된다.



2018년형 위니아 에어컨. /대우위니아

가전양판점에서 예약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5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증정한다.

오는 4월 9일까지 행사를 통해 에어컨을 구매하면 4월 30일까지 제품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현대위아 숙식·스터디 가능한 직원복지시설 ‘이룸재’ 오픈

현대위아가 임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 종합복지시설 ‘이룸재’를 오픈한다.

현대위아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이룸재에서 ‘현대위아 복지관 이룸재 준공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룸재는 기숙사·교육장·북카페와 함께 어린이집이 있는 멀티플렉스형 직원복지관이다.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총 19,612㎡(약 6000평)에 달한다. 준공식에는 김경배 현대위아 사장과 손성환 현대위아 노조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위아는 이룸재에 400여명의 임직원이 동시에 머물 수 있는 최신식 기숙사 210실을 마련했다. 창원 지역에 연고가 없는 임직원과 출장자는 이룸재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룸재는 교육장으로도 활용된다. 200명 이상의 임직원이 한 번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354㎡(107평) 크기의 다목적홀을 만들었다.



현대위아 김경배 사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지난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현대위아 직원복지관 ‘이룸재’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테이프커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위아

142㎡(43평) 규모의 교육장 두 곳과 직원들의 스터디 모임 등을 진행할 수 있는 43㎡(13평) 규모의 토론실을 네 곳 마련했다.

오는 3월에는 이룸재에 ‘현대위아 어린이집’이 문을 연다. 어린이집은 만 1~5세의 영유아 총 49명과 교사 6명으로 구

성된다. 어린이집 운영은 전국에서 100곳 이상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한솔 어린이보육재단이 맡는다. 내부는 친환경 소재를 대폭 적용해 구성했고,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학부모들이 보육 상황을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양성문 기자 ysw@